



산타와 루돌프로 변신한 트와이스 '귀여운 산타걸 출동!' 걸그룹 트와이스(왼쪽부터 정연·채연·다현·사나·지효·나연·모모·쯔위)가 25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SBS 가요대전' 포토월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저마다 산타 복장을 입거나 루돌프 분장을 하고 상큼한 매력과 코믹함을 동시에 뽐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영화 '천문:하늘에 묻는다' 오늘 개봉 | 세종 역 맡은 배우 한석규

“두 번째 세종, 어머니로부터 풀어냈죠”

미국 속에서 세종 길러낸 어머니 배우꿈 지원해준 우리 엄마 같아 저에게 연기란 나에 대한 탐구죠



“(최)민식이 형님이 한 말입니다. ‘연기는 죽어야 끝나는 공부’라고 말이죠. 저도 똑같아요. 연기는 결국 나를 통해 나오잖아요. 나를 알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연기는.”

배우 한석규(55)는 한 번 입을 떼면 좀처럼 끝내지 않는 특유의 만연체 화법으로 연기를 대하는 마음을 풀어냈다.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인 영화 ‘천문:하늘에 묻는다’(감독 허진호·제작 하이브 미디어코프)의 주인공이지만 왜 참여했는지, 촬영과정이 어땠는지 따위에 대한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다만 왕과 천민인 관노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같은 꿈을 꾸고 이루면서 믿음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벗”이란 단어로 정의했다. 2011년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이어 다시 세종을 연기한 그이지만 걸림돌은 없어 보였다. 오히려 더욱 깊어진 해석과 진일보한 표현으로 보는 이들의 입을 떠 벌어지게 만든다.

“이번 세종은 어머니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태종)가 어

머니의 형제들을 죽이는 걸 보고 자란 이도(세종의 이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도의 어머니는 말 못할 속병이 낫을 테고, 심성 착한 이도는 더 착해지려고 이를 악 물었겠죠.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왕이 되지 말자고 결심했을 테고요.”

한석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막내아들인 그에게 유독 각별했다는 어머니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1년 동안 “시간을 죽이려” 정처 없이 다닐 때도 아무 말 없이 담배 값이며 차비를 쥐여줬다.

“아내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셨을 때인데 바람 쐬러 나갔다가 풍악을 울리는 공연을 같이 보게 됐어요. 꽤 힘드셨을 텐데도 손을 들고 춤을 추시더군요. 아! 저런 모습이 (연기하는)나에게 왔구나...”

아직 배우로서 꽃 피우지 못한 시절 한석규와 최민식의 재능을 알아보고 인정한 사람도 어머니다. 한석규는 1983년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2년 선배인 최민식을 만났다.

“1989년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졸업 공연을 민식이 형과 같이 했어요. 그 공연을 본 엄마가 ‘두 놈은 밥은 먹고 살겠네’ 하더라고요. 정말 민식이 형이랑 제가 연기로 밥은 먹네요. 허허! 무언가



배우 한석규가 영화 ‘천문:하늘에 묻는다’를 세종으로 변신했다. 베테랑으로 통하는 그이지만 ‘연기는 나에 대한 탐구’라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에 푸욱 빠져들어 주위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우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민식이 형이 그래요. 비슷한 사람입니다.”

1990년대 최고의 흥행배우로 통하는 한석규이지만, 2000년대 들어 3년여 동안 연기를 멈추기도 했다. 그를 다시 극한 사람 또한 어머니다.

“그때 농담처럼 ‘엄마! 나는 예술을 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야 이 녀석아! 돈 버는 게 예술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를 저는 알죠. 엄마의 역사를 아니까요. 한국전쟁 나고 6개월 만에 미군 물건 빨래해주면서 우리를 키운 엄마이니가요. 그 분 앞에서 예술이니 돈이니 하면서 건방지면 안 되는 거죠.”

30년 전 일도 어찌 별어진 것처럼 또렷하게 기억하는 한석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도 올라왔고, 남모름 고민도 겪으면서 지금의 자리에 왔다. 요즘은 안방극장에서든 승승장구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비밀의 문’ 등 히트작도 여러 편이지만, 배우 인생 2막을 대표하는 작품은 흥행 여부를 떠나 ‘천문:하늘에 묻는다’가 될 것 같다.

“저에게 연기는, 나에 대한 탐구입니다. 젊을 땐 남을 연구하는 게 연гийн 줄 알았는데, 아니예요. 결국 연기가 좋아지려면 내가 좋아져야 하는 거죠.”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한석규·최민식만? ‘천문’ 연기 장인 총출동

신구·허준호·김홍파·김원해 허진호 감독 “보기 힘든 조합”

영화 ‘천문:하늘에 묻는다’는 그야말로 연기 앙상블의 진면목이다. ‘연기 장인’이란 표현이 아깝지 않은 최민식과 한석규 못지않게 실력을 지닌 배우들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황홀한 연기의 향연을 펼친다.

‘천문:하늘에 묻는다’는 최민식과 한석규가 주인공인 장영실과 세종 역을 각각 맡아 몽클한 서사를 구축한다. 하지만 ‘천문:하늘에 묻는다’의 완성도는 비단 두 배우의 활약에만 기대지 않는다.

원로배우 신구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허준호와 김홍파, 이야기의 빈틈마저 채우는 김원해까지 실력과 배우들의 활약이 힘을 보탠다. 겨울 극장에서 경쟁

하는 ‘백두산’ ‘시동’과 비교해 가장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단 한 명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제 몫을 해낸다.

완고하고 노화한 영의정 역을 연기한 신구는 최민식과 한석규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참여했다. 최민식과는 연극 ‘에쿠스마’로, 한석규와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로 각각 인연을 맺은 신구는 촬영장의 최고 선배로 모두들 “긴장하게 만든” 존재로 통했다.

세종의 편에 선 조말생 역의 허준호는 영화 중반에서야 등장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야기의 긴장감은 배가 된다. 또 장

영실의 후견인인 무신 이천 역의 김홍파, 장영실을 내심 존경하는 문신 조순생 역의 김원해 역시 이름값을 톡톡히 한다.

허진호 감독은 촬영에 앞서 이들 배우들이 각자 해석한대로 인물을 표현하도록 이끌었다. 이후 서로의 의견을 보태고 다듬는 과정을 거친 뒤 각각의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한 편의 영화에 모이기 어려운 배우들과 작업한 허진호 감독은 “앞으로도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를 배우들의 조합”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해리 기자

연예뉴스 HOT 4

에이프릴 진솔 “성희롱 제발 하지 마”



에이프릴 진솔

걸그룹 에이프릴의 멤버 진솔이 온라인상 성희롱 게시물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진솔은 25일 SNS에 “짧은 의상이나 좀 달라붙는 의상 입었을 때 춤추거나 걷는 것, 뛰는 것을 일부러 느리게 재생시켜 만든 짤(짧은 동영상) 올리는 것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일부 누리꾼이 2001년생으로 올해 18세인 자신의 몸매가 부각되는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이다.

한채아, 남편 차세찌 음주운전 사고



한채아

연기자 한채아가 남편 차세찌 씨의 음주운전과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아들이기도 한 차세찌 씨는 23일 밤 11시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차를 운전하고 가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로 24일 입건됐다. 한채아는 이날 밤 SNS에 “(남편의 음주운전)명백히 잘못된 행동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기에 변명의 여지없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채아와 차 씨는 작년 5월 결혼했다.

정경호 ‘에브리데이’ 음원 수익금 기부



정경호

연기자 정경호가 음원 수익금을 기부한다. 음반제작사 유주룩스는 “정경호가 29일 첫 음반인 디지털 싱글 ‘에브리데이’를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작사 측은 “정경호의 다양한 매력을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의 기대감을 반영해 기획했다”고 음원 공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경호는 내년 1월 방영하는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촬영 중이다.

웬디 ‘가요대전’ 리허설 중 부상



레드벨벳 웬디

걸그룹 레드벨벳의 웬디가 25일 오후 ‘2019 SBS 가요대전’ 리허설 도중 부상을 입었다. 이날 웬디는 리허설을 하다 무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웬디는 얼굴 부위를 다치고 오른쪽 손목과 골반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 중이다. 이에 따라 SBS는 이날 밤 레드벨벳의 사전녹화분만 방송했다. SBS는 “팬 여러분 및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더킹’ 이민호·‘사이코’ 김수현 “강하늘 인가, 내가 있다”

11월 종영한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 이전과 이후 모습을 바라보는 시청자 시선을 확연히 바꿀 만큼 ‘대박’을 터트렸다. 극중 충청도 사투리 대사를 맛깔스럽게 구사하며 순애보, 코믹, 박력, 가족애 등 변화무쌍한 얼굴을 보여줬다. 영화 ‘청년경찰’ ‘동주’ 등 스크린 활약을 통해 일찌감치 입증한 연기력에 스타성까지 더해지며 최고의 평가를 이끌어냈다. 올해 안방극장의 ‘흥행 아이콘’ 강하늘이다. 그렇다면 그가 2019년 누린 영광을 2020년에는 과연 누가 차지할까.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민호와 김수현이 거론되고 있다. 군 복무 등으로 길게는 5년간 안방극장을 떠나있다가 돌아올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이들의 컴백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30대 연기자를 대표하며 안방극장을 이끄는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두 사람은 한류 인기까지 몰고 다닌다는 점에서 마치 ‘숙명’처럼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안방극장에서 승승장구해온 두 사람이 지난 공백의 우려를 무색하게 하는 활약을 벌일 수 있을지 관심사다.

이민호는 올해 4월 제대하자마자 복귀작으로 SBS ‘더 킹:영원의 군주’를 선택했다. 김은숙 작가와 재회해 ‘잘 할 수 있는 것보다 잘 하는’ 분야를 공략한다. 앞서 ‘푸른 바다의 전설’ ‘상속자들’ 등에서 보여준 카리스마와 ‘허당’ 성격이 적절히 섞인 캐릭터의 매력을 황제라는 설정을 활용해 한층 업그레이드할 기대다.

김수현은 변신을 내세운다. 케이블채널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정신병동 보호사 역을 맡아 결코 속이 전혀 다른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외모와 성격 등 겉



이민호

김수현

강하늘

으로는 완벽하게 보이지만 자폐 증상이 있는 형을 보살피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물이다. 이전 출연작인 ‘프로듀사’ ‘별에서 온 그대’ 등에서 보여준 어리바리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청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